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92



Contents



※ 2025.08.14.(목) 기준(대상 기간 : 2025.08.07.~2025.08.14.)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탄소중립 가치 담아 본격 착수(2025.08.11)	1
– 구례군,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홍보대사 위촉(2025.08.07)	1
– 수원시, 공공부문 탄소중립 실천 가이드라인 시행(2025.08.07)	2
– 증평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으로 기후위기 대응 본격화(2025.08.07)	2
– 인제군, 전통시장에서 탄소중립 실천 거리 캠페인 전개(2025.08.11)	3
– 동해시, 바다숲 조성으로 자연회복·탄소중립·어촌재생 동시 추진(2025.08.12)	3
■ AI 분야 4	
– 대통령실 AI수석, 백악관 OSTP 실장과 한미 과학기술 협력 논의(2025.08.07)	4
– 정부, 'AI 국가대표팀' 5곳 선정…글로벌 패권 경쟁 본격화(2025.08.07)	5
– 국정기획위, 관악S밸리 방문하여 AI 기업 애로사항 청취(2025.08.07)	5
– 국가 AI 컴퓨팅센터 3차 공모 임박…지자체 유치전 재점화(2025.08.07)	6
– 구리시, 8월 청년 성장 프로젝트에 AI 활용법 등 포함(2025.08.07)	6
– 울산 남구, 전국 최초 편의점 활용 AI 복지망 구축(2025.08.07)	7
– 오산시, 공무원 채용에 AI 역량검사 도입으로 인사행정 혁신(2025.08.07)	7
– 아산 여성새일센터, 생성형 AI 활용 마케팅 전문가 양성(2025.08.07)	8
– 구미시, AI·우편서비스로 복지망 강화…1300명 추가 지원(2025.08.07)	8

- 전북도,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AI 기술 접목 시동(2025.08.07) 9
- 포항시, 식품·AI·로봇 융합 푸드테크 클러스터 구축 본격화(2025.08.07) 9
- AI, 강원도 인구소멸 대응 전략으로 '지역 고유 자원 활용' 제시(2025.08.07) 10
- 강원도, 전국 최초 대화형 'AI 당직원' 도입으로 행정 혁신(2025.08.07) 10
- 경기도-용기원, '종단 간 AI' 기반 레벨4 자율주행 기술 개발 착수(2025.08.07) 11
- 경상북도개발공사, 생성형 AI 활용 보고서 경진대회 개최(2025.08.07) 11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12

■ 탄소중립 분야 12

- 코레일, RE100 추진단 출범으로 탄소중립 본격화(2025.08.07) 12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대상 탄소중립 지원 서비스 개시(2025.08.07) 12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3

■ 탄소중립 분야 13

- 신한캐피탈-케코이에스, 탄소중립 사업 협력 MOU 체결(2025.08.07) 13
- 아이에스티이, 쌍용씨앤이의 탄소중립 사업용 설비 수주(2025.08.11) 14
- 신한자산운용, 글로벌 탄소중립 펀드 수탁고 500억 돌파(2025.08.12) 15
- 경희대, 차세대원전 강좌로 탄소중립 핵심 인재 양성(2025.08.08) 15

■ AI 분야 16

- LG유플러스, 업무용 통화 솔루션 'AI비즈콜' 기능 고도화(2025.08.07) 16
- DB손해보험-티쓰리큐, AI 기반 장기보험 보상 자동화 추진 협약(2025.08.07) 16

- LG CNS, 인도네시아에 1천억 원 규모 초거대 AI 데이터센터 구축(2025.08.07)	17
- 삼성D 부사장, "디스플레이 친환경 전환에 AI가 핵심 도구 될 것"(2025.08.07)	18
- 쿠팡, 2분기 역대 최대 매출 달성...대만·AI·신선식품이 성장 동력(2025.08.07)	18
- AI 기술 고도화, 다른 AI 검증 및 반려동물 종양 진단까지 확장(2025.08.07)	19
- NH농협금융, 그룹 공동 생성형 AI 테스트 환경 구축 착수(2025.08.07)	19
- 앤스로픽 CEO, "AI, 6개월마다 2배씩 기하급수적으로 발전 중"(2025.08.07)	20
- 클라우드웍스, 가트너 '금융권 생성형AI 플랫폼' 보고서 대표 기업 선정(2025.08.07)	20
- 벤처기업협회, 유럽 최대 스마트시티 엑스포 참가기업 모집(2025.08.07)	21
- 위버스브레인, AI 기반 영어 회화 평가 '맥스AI 스피킹테스트' 출시(2025.08.07)	21
- 코오롱베니트, AI 공동 영업 전문가 그룹 'AI 세일즈 엘리트' 출범 예고(2025.08.07)	22
- 단국대-한양대, 빛으로 학습하는 종이 위 AI 반도체 개발(2025.08.07)	22
- 세종대, 전국 교육용 부지에 AI·국방 클러스터 조성 본격화(2025.08.07)	23
- 한림대 등 6개 대학, 의료 AI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 선정(2025.08.07)	23
- 경남대, '제조 AI 전환 허브 대학' 비전으로 글로벌대학 도전(2025.08.07)	24
- 오픈AI, 미국 연방정부에 챗GPT 기업용 서비스 1년간 1달러에 제공(2025.08.07)	24
- 중국, 반려동물 시장에 AI 기술 접목...스마트 용품 수요 급증(2025.08.07)	25
- AWS, 아마존 베드록 통해 오픈AI의 오픈 웨이트 모델 제공(2025.08.07)	25
- 중국 청년들, 고단한 현실 속 위로와 공감 위해 'AI 연인'에 몰입(2025.08.07)	26
-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 '모두를 위한 AI' 협력 선언(2025.08.07)	26
- AI, 기후 예측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나 에너지 소비는 부담(2025.08.07)	27
- AI 인재의 중요성, 미·중 경쟁 속 한국의 선택과 집중 전략(2025.08.07)	27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탄소중립 가치 담아 본격 착수(2025.08.11) - 국회사무처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 관리용역에 착수하며 사업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림. 용역 수행업체로 한국건축가협회가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15개월간 체계적인 공모 기획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됨. 이는 행정수도로 조성 중인 세종시에 국회의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는 역사적인 사업의 첫 단추를 꿰는 것임 - 국회사무처는 새로 건립될 세종의사당 건축물에 중요한 가치를 담아낼 것을 강조함. 특히 국민주권의 철학을 건축적으로 구현하고, 건물 운영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을 핵심 설계 목표로 제시함. 이는 세종의사당을 단순히 업무공간을 넘어 국가적 상징성과 시대적 과제인 환경 가치를 모두 담아내는 대표적인 건축물로 만들겠다는 의지임 - 향후 일정은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된 후 본격적인 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2026년 5월까지 최종 당선작을 선정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이번 사업이 국가 균형 발전 도모와 국정 운영 효율 제고라는 핵심 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히며 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함
지자체	□ 구례군,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홍보대사 위촉(2025.08.07) - 전라남도 구례군이 기후 위기 대응과 흙의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의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함. 이 행사에는 김순호 구례군수와 국회의원, 관련 단체장 등 약 80명이 참석하여 흙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힘을 모으기로 다짐함. 이번 위촉식은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대국민 홍보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됨 - 박람회의 글로벌 홍보대사로는 대한민국 대표 작곡가 김형석을 비롯하여 방송인 카를로스 고리토, 크리스티나 콘팔로니에리 등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유명 인사들이 임명됨. 이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구례 흙 살리기 박람회의 중요성과 가치를 국제 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홍보대사들은 흙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라는 소감을 밝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올해로 예정된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는 9월 19일부터 3일간 구례군 지리산 역사문화관 일원에서 개최됨. 군은 흙 살리기 주제관, 기업홍보관, 약선셰프의 텃밭 등 방문객들이 흙의 생태적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다채로운 테마 공간을 마련할 방침임. 김순호 군수는 이번 박람회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인류의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며 많은 이들의 동참을 호소함
	□ 수원시, 공공부문 탄소중립 실천 가이드라인 시행(2025.08.07) - 경기도 수원시가 행정 전반에 탄소중립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수원시 공공부문 탄소중립 실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감. 이 가이드라인은 수원시청뿐만 아니라 모든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 포괄적으로 적용되어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과 자원 순환을 실천하는 기준이 됨. 이는 공공 행정의 패러다임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려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 - 가이드라인은 일상 업무, 회의 운영, 행사·축제 등 3개 분야에 걸쳐 총 10개 과제와 35개의 구체적인 실천 수칙으로 구성됨. 일상 업무 분야에서는 냉난방 에너지 최소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인쇄물 대신 디지털 자료 활용, 녹색제품 의무 구매 등의 수칙을 담고 있음. 회의 운영 분야에서는 종이 없는 회의와 다회용기 사용을, 행사 분야에서는 쓰레기 최소화(제로웨이스트) 기획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함 - 수원시는 가이드라인의 실질적인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임. 각 부서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실천 체크리스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모니터링하여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임. 시 관계자는 공공 부문의 솔선수범을 통해 탄소중립 문화가 시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어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증평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으로 기후위기 대응 본격화(2025.08.07) - 충북 증평군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킴. 김선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앞으로 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됨. 이는 지역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함 - 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증평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논의함. 이 법정 계획은 '국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미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Net-zero 도시 증평'이라는 비전 아래, 2034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31.6% 감축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함. 목표 달성을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의 세부 이행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군은 설정된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전략과 39개 핵심사업으로 구성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함. 친환경에너지 도시 조성, 저탄소 농업도시 육성, 순환 경제 선도, 늘 푸른 녹색도시 구축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이재영 군수는 위원회가 지혜를 모아 '2050 증평형 탄소중립' 실현의 중추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함
	□ 인제군, 전통시장에서 탄소중립 실천 거리 캠페인 전개(2025.08.11) - 강원도 인제군에서 지역 주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의미 있는 거리 홍보 캠페인이 열림. 인제군자원봉사센터와 한국부인회 인제군지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주민들의 생활 중심지인 원통전통시장에서 진행되어 시민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을 유도함. 이는 관 주도가 아닌 민간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풀뿌리 환경 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이번 캠페인은 '탄소중립'이라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개념을 주민들의 일상 속으로 가져와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춤. 시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장바구니 사용, 올바른 분리배출, 불필요한 포장 줄이기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리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작은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러한 지역사회 기반의 캠페인은 국가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주민 개개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생활 습관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인제군의 사례는 다른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자극을 주며 탄소중립 문화 확산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임
	□ 동해시, 바다숲 조성으로 자연회복 · 탄소중립 · 어촌재생 동시 추진(2025.08.12) - 강원도 동해시가 묵호 연안 해역의 심각한 '갯녹음(백화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바다숲' 조성 사업에 착수함. 2028년까지 총 11억 9,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3km² 면적에 해조류를 이식하는 등 연안 생태계 복원 사업을 펼칠 계획임. 이 사업은 자연 생태계 회복, 탄소중립 기여, 어촌 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해결책으로 주목받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바다숲은 해조류가 사라진 바닷속 암반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꼽힘. 해조류 군락은 수산생물에게 필수적인 산란처와 서식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으로서 온실가스 저감에 크게 기여함. 또한, 다양한 유용성 물질의 공급원으로서 의약품 개발 등 경제적, 산업적 가치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동해시는 묵호 연안의 갯녹음률이 80.6%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인근 대진 연안 해역에 대한 추가적인 바다숲 조성 공모사업에도 도전할 계획임. 시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확보와 연안 생태계 복원을 위해 정부 차원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 이를 통해 풍요로운 동해 바다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고자 함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대통령실 AI수석, 백악관 OSTP 실장과 한미 과학기술 협력 논의(2025.08.07) - 대통령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과 만나 양국의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이번 회동은 인천 송도에서 열린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양국 간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자리였음 - 하 수석은 미국이 최근 발표한 'AI Action Plan'과 관련하여, 설계부터 운용까지 AI 기술 전반을 포괄하는 '풀스택 AI' 수출 정책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함. 이는 미국의 AI 기술 동맹 전략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고 협력의 폭을 넓히기 위한 중요한 논의로 평가됨. 양국은 AI 기술 동향과 정책 방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공유함 - 양측은 특히 제조 AI, 오픈소스 AI, 과학 AI, 그리고 AI 데이터센터 및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함. 이번 만남에는 경제안보비서관, 미국 상무부 차관 등 양국의 핵심 관계자들이 배석하여, 향후 구체적인 협력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며 AI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정부, 'AI 국가대표팀' 5곳 선정...글로벌 패권 경쟁 본격화(2025.08.07) - 정부가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독자 AI 파운데이션' 프로젝트에 참여할 5개 국가대표팀을 선정하며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듦.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 연구원이 선정되었으며, 정부는 2027년까지 GPU 지원 및 데이터 확보 등에 총 5,300억 원 규모를 지원하여 글로벌 최신클 모델 성능의 95% 이상을 갖춘 독자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함 - 하지만 국내 기업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글로벌 빅테크와의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옴. 미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규모는 수백조 원에 달하며, 국내 투자 규모와는 비교가 어려움. 따라서 전문가들은 국내 AI 모델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미 앞선 기술력을 확보한 미국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함 - 결국 국방, 공공, 금융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영역에는 국내산 AI 도입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 외 분야에서는 미국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외부 기술 협력 없이는 'K-AI'의 존재감이 미미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분석 속에서, 최소한의 디지털 주권(AI 소버린)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요구됨
	□ 국정기획위, 관악S밸리 방문하여 AI 기업 애로사항 청취(2025.08.07) -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가 서울 관악S밸리를 방문하여 AI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짐. 이 자리는 국내 AI 산업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됨. 정태호 분과장을 비롯한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이 참석하여 기업들과 소통함 - 간담회에서 정태호 분과장은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지가 있음을 밝힘. 기업 대표들은 기술 개발, 인재 양성, 투자 유치 등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부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요청함. 특히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국내 스타트업이 생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AI 기업들이 혁신과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할 계획임.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해, 관악S밸리가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국가 AI 컴퓨팅센터 3차 공모 입박...지자체 유치전 재점화(2025.08.07) - 두 차례 유찰되었던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의 3차 공모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9월 초에 진행될 예정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전 공모의 실패 원인으로 지목된 수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의 지분 구조를 조정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업 조건을 개선할 방침임 -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1엑사플롭스(EF) 이상의 초고성능 컴퓨팅 능력을 갖추고, 이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총 2조 5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국책 사업임. 삼성SDS 등 주요 기업들이 개선된 조건 하에 3차 공모에 긍정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짐 - 정부와 기업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에 따라, 센터를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도 다시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기존에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인 광주시는 대통령의 공약을 근거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부산, 대구 등 다른 지자체들도 기업들과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음
지자체	□ 구리시, 8월 청년 성장 프로젝트에 AI 활용법 등 포함(2025.08.07) - 경기도 구리시가 청년들의 자기 이해와 미래 설계를 돕기 위해 운영 중인 '2025 구리시 청년 성장 프로젝트'가 8월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계속됨. '멈춤 대신 활력을 채우고, 쉬며 성장하는 청년의 공간'이라는 콘셉트 아래,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총 14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됨. 이는 청년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하려는 시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함 - 8월의 주요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하여 구성됨. '테라리움으로 나만의 정원 만들기', 'MBTI 기반 커리어 로드맵 그리기', '퍼스널 컬러 진단' 등 취미와 진로 탐색을 아우르는 활동들이 준비됨. 특히 8월 26일에는 '실생활 AI 툴 활용법' 강좌가 개설되어, 최신 기술 트렌드에 맞춰 청년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임. 이는 청년들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 - 모든 프로그램은 구리시 청년내일센터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둔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신청이 가능함.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청년들의 실질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청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함. 참가 신청은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울산 남구, 전국 최초 편의점 활용 AI 복지망 구축(2025.08.07) - 울산광역시 남구가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을 복지거점으로 활용하는 '희망ON나' 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서며 지역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음. 이 모델은 관내 CU편의점 108개소를 활용하여 은둔·고립 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식사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들의 구매 패턴을 AI로 분석해 위기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혁신적인 방식임 - '희망ON나' 시스템은 대상자의 이상 소비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 갑작스러운 바우처 미사용, 심야 시간대 반복적인 구매, 특정 품목 집중 구매 등의 위기 징후가 AI에 의해 포착되면, 복지 담당자가 즉시 현장에 개입하여 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함. 이는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선 정밀한 사전 예방적 복지 체계로 평가받고 있음 - 편의점 점주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하며 민간 협력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서동욱 남구청장은 '희망ON나'가 기술, 민간, 주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복지 플랫폼이라며, 일상적 공간인 편의점을 통해 위기를 발견하고 공공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힘. 현재 23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120명을 추가 발굴하고 있음
	□ 오산시, 공무원 채용에 AI 역량검사 도입으로 인사행정 혁신(2025.08.07) - 경기도 오산시가 신규 공무원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AI) 역량검사를 전격 도입하며 데이터 기반의 인사행정 혁신을 시작함. 시는 2025년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 합격자 82명을 대상으로 AI 역량검사를 처음 적용했으며, 이는 공직 적합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조치임. 이를 통해 시는 공정하고 과학적인 인재 선발의 기틀을 마련함 - 이번에 도입된 AI 역량검사는 응시자의 인성과 적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면접 질문을 자동으로 생성함. 검사 결과는 최종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넘어, 합격 후 신규 공직자의 개인 역량과 특성에 맞는 최적의 보직을 배치하는 데에도 중요한 데이터로 사용될 예정임. 이는 인재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오산시는 이번 AI 역량검사 도입을 시작으로 향후 재직자 역량 분석, 고성과자 특성 파악 등 인사관리 전반에 AI 시스템 적용을 확대할 계획임. 이권재 시장은 이번 사례가 인사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시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아산 여성새일센터, 생성형 AI 활용 마케팅 전문가 양성(2025.08.07) - 충남 아산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생성형 AI 시대를 맞아 여성들의 안정적인 고부가가치 직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협력망 회의를 개최함. 이번 회의는 현재 운영 중인 직업교육훈련 과정 수료생들의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기업의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됨 - 현재 아산새일센터에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마케팅 실무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 중임. 이 과정은 챗GPT 등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마케팅 기법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둬, 교육생 20명이 실습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여 성공적으로 취업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박성룡 센터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기업 현장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교육과정을 더욱 개선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힘.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발맞춰 여성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력 단절 여성에게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됨
	□ 구미시, AI·우편서비스로 복지망 강화...1300명 추가 지원(2025.08.07) - 경북 구미시가 시민 일상에 밀착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함. 시는 이번 예산 증액으로 '일상돌봄서비스', '안부살핌소포 우편서비스', 'AI 살피미' 사업을 중심으로 약 1,300명의 시민에게 추가적인 돌봄 혜택을 제공하며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임 - 새롭게 추진되는 '안부살핌소포 우편서비스'는 1인 취약가구 100세대에 7개월간 생필품 소포를 월 2~3회 발송하는 사업으로, 우체국과의 협약을 통해 단순 물품 전달을 넘어 배송 과정에서 안부 확인까지 병행함. 또한, '구미 AI 살피미' 사업은 AI 전화를 통해 1,000가구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신호 감지 시 복지 인력이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임 - '일상돌봄서비스'는 질병이나 가족 부양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중장년층과 가족돌봄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정화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예산 증액이 시민의 일상과 감정, 안전을 모두 아우르는 복지 실현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전북도,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AI 기술 접목 시동(2025.08.07) -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전주 하계올림픽'을 AI 기반의 미래형 혁신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유치 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함. 도는 '전주 하계올림픽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의 첫 분과회의로 'AI·학술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첨단 기술과 학술 역량을 올림픽 유치 및 운영 전반에 집약시키는 방안을 논의함. 이는 '스마트 올림픽' 구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됨 - 회의에는 전북대, 군산대 등 도내 주요 대학의 산학협력단장과 교수진, AI 연구기관 관계자 등 21명이 참석함. 이들은 AI 기반의 경기 운영 효율화, 교통·보안·의료 시스템의 스마트화, 관중 예측을 통한 안전 관리 강화 등 실질적인 기술 적용 방안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함.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술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핵심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됨 - 참석자들은 기술력과 학문적 자산을 융합하기 위해 도내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함께 하는 '기술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함. 이를 통해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관련 인재를 양성하자는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됨. 도는 향후 분야별 분과회의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포항시, 식품·AI·로봇 융합 푸드테크 클러스터 구축 본격화(2025.08.07) - 경북 포항시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푸드테크 산업을 선정하고, 관련 기술의 거점 역할을 할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을 본격화함. 시는 포항소재산업진흥원에서 관련 기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센터를 중심으로 식품, AI, 로봇 기술이 융합된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함. 이는 포항형 푸드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요한 단계임 - 총사업비 155억 원이 투입되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임. 이 센터는 식품로봇 기술 개발부터 주방 자동화 실증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국내 최초의 복합형 식품기술 인프라로 조성될 예정임. 특히 지난 7월 미국위생협회(NSF)와 협약을 맺어, 아시아 최초로 NSF 공식 시험·인증 기능을 수행하게 됨 - 간담회에서는 외식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주방 자동화 로봇 도입, K-푸드 세계화와 연계한 기술 상용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생산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됨. 포항시는 도출된 제안을 바탕으로 후속 국비 사업을 기획하고, 센터를 통해 포항이 첨단 식품기술의 허브이자 세계적인 미식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AI, 강원도 인구소멸 대응 전략으로 '지역 고유 자원 활용' 제시(2025.08.07) - 생성형 AI가 2042년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 감소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함. AI는 특히 태백, 정선, 인제 등 고령화와 주력 산업 쇠퇴를 겪는 지역의 인구 감소 폭이 클 것으로 예측함. AI가 제시한 소멸 위기 대응의 핵심 전략은 각 지역이 가진 고유 자원을 활용한 '산업 기반 강화'와 '청년층 정착 유도' 등임 - 각 시군별 맞춤형 전략으로, 태백시에는 폐광 유산을 활용한 도시 재생 및 산악 레포츠 산업 육성, 고원 기후를 활용한 데이터 센터 유치를 제안함. 정선군에는 강원랜드 외에 산림 치유 관광 다변화와 스마트팜 육성을, 인제군에는 DMZ 생태 관광 활성화와 전역자 정착 지원 사업을 필요하다고 분석함. 이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한 것임 - 또한 양구군에는 군납 분야 창업 지원과 소규모 귀촌 단지 조성, 고성군에는 해양 레저 고도화와 장기 임대 주택 공급을, 양양군에는 청년 문화 복합지구 조성 및 외국인 장기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을 제안함. 이처럼 AI는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함
	□ 강원도, 전국 최초 대화형 'AI 당직원' 도입으로 행정 혁신(2025.08.07) -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원인과 대화가 가능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의 'AI 당직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오는 9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감. 기존의 단순 자동응답시스템(ARS) 수준을 넘어, 민원 내용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야간 및 공휴일 민원 응대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됨 - 새롭게 도입되는 AI 당직원은 일반적인 행정 문의 접수뿐만 아니라, 산불, 도로 파손 등 긴급 상황을 감지하는 능력까지 갖추. 민원인의 신고 내용과 위치를 파악하여 위험 상황으로 판단되면 즉시 당직자에게 문자나 경고음으로 알림을 전송해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됨. 또한, 주취자나 악성 민원에도 일관적으로 응대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효과도 있음 - AI 당직원은 민원 내용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텍스트로 변환하여 담당 부서에 전달함으로써 후속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전망이다. 강원도는 AI 당직원 도입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자체 AI 행정 서비스 플랫폼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등 '스마트 행정' 실현을 위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 경기도-용기원, '종단 간 AI' 기반 레벨4 자율주행 기술 개발 착수(2025.08.07) -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용기원)이 '종단 간 AI(End-to-End AI)'를 기반으로 하는 레벨4 수준의 고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함. 이 사업은 기존의 규칙 기반 자율주행 기술의 한계를 넘어, 센서 입력부터 차량 제어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통합된 AI 모델이 처리하도록 하는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는 기술 국산화와 상용화를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 이번 연구개발은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판교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의 실제 주행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모델을 학습시킬 예정임. 개발된 기술은 현재 판교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버스 '판타G버스'에 우선 적용되어, 기존 레벨3 수준에서 레벨4로 기술을 고도화하는 실증 연구를 거치게 됨. 연구진은 개발된 AI 모델과 데이터셋을 단계적으로 공개하여 관련 산업 생태계 확산에도 기여할 계획임 - 김연상 용기원장은 이번 연구가 국내 최초로 '종단 간 AI'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강조함. 용기원은 핵심 기술 국산화와 실증 연구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고, 차세대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힘. 이는 경기도의 미래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지자체	□ 경상북도개발공사, 생성형 AI 활용 보고서 경진대회 개최(2025.08.07) -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용 보고서 작성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업무 혁신과 효율성 제고에 나섬. 이번 대회는 직원들이 생성형 AI를 업무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을 키우고, 우수 사례를 발굴 및 공유하여 공사 내부의 AI 도입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됨. 이는 공사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됨 - 참가 직원들은 다양한 생성형 AI를 직접 활용하여 보고서의 기초자료 수집부터 구조 설계, 결론 도출까지 전 과정에 AI를 적용함. 대상을 수상한 보고서는 생성형 AI를 통해 보고서의 전체 구조와 목차를 잡고, 정부 국정 방향 분석 및 타 기관의 핵심성과 요약 등 복잡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높은 평가를 받음. 이는 AI가 전략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공사는 이번 경진대회 외에도 'ChatGPT 경진대회' 개최, 실무 중심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AI 자격증 취득 지원 등 AI 활용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옴. 또한, 업무 환경에 최적화된 자체 'GBDC 생성형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성을 확보하여 직원들이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코레일, RE100 추진단 출범으로 탄소중립 본격화(2025.08.07)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사장 직속의 'RE100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며 체계적인 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함. 추진단은 환경 및 에너지 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통합한 기구로, 총 23명의 전문가가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미래발전 등 5개의 세부 분과로 나뉘어 활동을 전개할 예정임. 이는 국내 최대 전력 소비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 경영을 핵심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명임 - 추진단의 각 분과는 구체적인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됨. 탄소중립분과는 국가적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코레일의 중장기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는 임무를 맡음. 재생에너지분과는 전국에 걸친 철도망 인프라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운송 모델 개발과 태양광 발전 사업 기획 등 에너지 효율화 전략을 담당함. 또한 미래발전분과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실증 연구와 LNG 열병합발전소 시범사업 같은 미래형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함 - 이번 추진단 출범은 환경 규제를 단순한 제약이 아닌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함. 코레일은 국가 핵심 교통 인프라로서의 위상을 바탕으로 친환경 에너지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이를 위해 정부 정책 및 신기술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철도 시대를 열어갈 계획임을 밝힘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대상 탄소중립 지원 서비스 개시(2025.08.07) - 기술보증기금이 국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 이번 지원 서비스는 갈수록 중요해지는 환경 규제와 글로벌 공급망의 요구에 중소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함. 이는 중소기업의 환경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보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반영하는 것임 - 제공되는 핵심 서비스는 두 가지의 자가 진단 시스템임. 첫 번째는 기업의 경영 활동이 정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스스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임. 두 번째는 기업이 배출하는 탄소량을 직접 관리하고 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탄소배출 관리 지원 서비스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환경경영 도구를 제공함 - 기술보증기금은 단순히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 자가 진단 데이터를 통해 탄소 감축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우대 보증을 제공하는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할 방침임.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활동을 촉진하고 녹색 기술 투자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함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신한캐피탈-켄코이에스, 탄소중립 사업 협력 MOU 체결(2025.08.07) - 신한캐피탈이 에너지 전문기업 켄코이에스(KEPCO E&S)와 탄소중립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친환경 에너지 금융 지원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본격화함.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폐열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폐기물 에너지화 등 국내 에너지 전환 사업 전반에 대한 공동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함 -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신규 사업 모델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사업 파이프라인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함. 또한 RE100 이행 기업이나 고효율 설비 교체, 그린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자문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원 조달을 위한 금융 지원 전략을 함께 수립하는 등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갖추 -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이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함. 썬코이에는 기술과 재무 측면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 밝힘. 신한캐피탈은 금융 부문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이번 협약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확대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민간기업	□ 아이에스티이, 쌍용씨앤이의 탄소중립 사업용 설비 수주(2025.08.11)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기업 아이에스티이가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쌍용씨앤이가 발주한 '산소부화설비 구축공사'를 수주하며 에너지 사업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둠. 이번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공정 혁신을 목표로 함. 낙찰 금액은 약 76억 원으로,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임 - 아이에스티이는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분야 외에도 2021년부터 수소에너지 사업에 진출하여 꾸준히 역량을 쌓아옴. 울산, 전주 등 지자체가 발주한 수소충전소와 보령의 수소생산기지 건설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경험이 이번 수주의 배경이 됨. 특히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는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음 - 회사 측은 이번 시멘트 산업용 설비 수주를 에너지 사업 고도화 전략의 중요한 시금석으로 보고 있음. 이를 통해 확보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향후 주력 분야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도 요구되는 탄소중립 설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함. 이는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전략적 포석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신한자산운용, 글로벌 탄소중립 펀드 수탁고 500억 돌파(2025.08.12) - 신한자산운용이 출시한 '신한글로벌탄소중립솔루션펀드'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탁고 500억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달성함. 올해에만 370억 원이 넘는 신규 자금이 유입되며,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이라는 명확한 테마를 가진 투자 상품의 경쟁력을 입증함. 이는 ESG 경영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이 펀드는 뛰어난 수익률로 시장의 주목을 받음.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최근 1년 수익률이 77.75%에 달해 전체 글로벌 주식형 펀드 중 1위를 기록함. 이러한 우수한 성과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에 기인함. 발전, 수소, 순환경제, 모빌리티, AI 등 5대 핵심 테마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함 - 운용 책임자는 미국과 국내 주요 성장주를 균형 있게 편입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초과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힘. 특히 각국 시장에서 주목받는 신성장 사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핵심임. 앞으로도 글로벌 유동성 확장 국면 속에서 탄소중립 관련 기업들의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고 전망하며 긍정적인 운용 전략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함
대학교	□ 경희대, 차세대원전 강좌로 탄소중립 핵심 인재 양성(2025.08.08) - 경희대학교 차세대원전 기반 탄소중립 융합대학원이 '차세대원자력 시스템 2025 하계 단기강좌'를 개최하며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기술 인재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섬. 이번 강좌는 온실가스 감축과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는 차세대 원자력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전국 11개 대학의 원자력 전공 대학원생과 산업체 실무자 등 130여 명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임 - 강좌의 교육 내용은 소듐냉각고속로(SFR), 고온가스로(VHTR) 등 다양한 차세대 원자로 기술의 최신 동향과 설계, 운용 방안을 깊이 있게 다룸. 특히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원자력 허가 절차와 국제 제도 등 정책적 측면까지 포함하여 참가자들이 산업 현장과 제도적 흐름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특징임. 이는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 - 강사진은 경희대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AIST 등 국내 최고의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교육의 질을 높임.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미래 에너지 인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보여줌. 이를 통해 차세대 원전 생태계의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고자 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LG유플러스, 업무용 통화 솔루션 'AI비즈콜' 기능 고도화(2025.08.07) - LG유플러스가 자사의 AI 통화 에이전트 'AI비즈콜 by ixi'의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하고 AI 특화 기능을 추가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함. 이 서비스는 유선전화 없이도 회사 번호로 스마트폰을 통해 고객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으로, 통화 내용 자동 녹음 및 텍스트 요약, 그룹 통화, 통화 돌려주기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통화 내용을 기반으로 AI가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추천해주는 기능과 자주 통화하는 연락처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이 한층 강화됨. 또한, 고객 응대 직원의 보호를 위한 '폭언 신고' 기능을 새롭게 도입하여, 직원이 버튼을 누르면 상대방에게 안내 후 통화가 자동 종료되도록 함. 이는 감정 노동 스트레스를 줄이고 고객 응대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 AI비즈콜은 특히 학부모 및 학생과의 소통이 잦은 교육기관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미 270여 곳의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 5천여 명이 사용 중임. LG유플러스는 연내에 자체 개발한 온디바이스 AI '익시젠'을 활용해 폭언이나 성희롱 등 악성 민원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능까지 추가할 계획이며, 교육계를 넘어 다양한 업종으로 서비스 확장을 추진할 방침임
	☐ DB손해보험-티쓰리큐, AI 기반 장기보험 보상 자동화 추진 협약(2025.08.07) - DB손해보험이 AI 기술 기업 티쓰리큐(T3Q)와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보험 업무 혁신을 위한 공동 개발에 나섬. 이번 협약의 핵심 목표는 업계 최초로 장기보험 보상청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으로, 온톨로지 기반 AI 기술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활용하여 처리 효율성과 고객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이를 위해 양사는 개념검증(PoC)의 성공적 수행과 성과 기반의 공동 대외협력을 추진할 계획임 - 티쓰리큐는 이번 사업에 자사의 AI 비즈니스 혁신 플랫폼인 'EDPP'를 적용할 예정임. 이 플랫폼에는 AI, 통계, 규칙 기반의 데이터를 정보화하는 '하이브리드 온톨로지'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 복잡한 보험 청구 문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처리하는 데 강점을 가짐. DB손해보험은 여러 국내외 AI 기술 업체를 검토한 끝에 티쓰리큐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여 최종 PoC 수행사로 선정함 - 이번 협력은 보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됨. 심진섭 DB손보 본부장은 AI 기반의 보상청구 자동화가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 내부의 업무 생산성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AI 보험 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데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함
민간기업	□ LG CNS, 인도네시아에 1천억 원 규모 초거대 AI 데이터센터 구축(2025.08.07) - LG CNS가 국내 기업 최초로 해외에서 약 1천억 원 규모의 초거대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섬.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지상 11층, 서버 10만 대 이상 수용 규모의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센터를 2026년 말까지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인도네시아 재계 3위인 시나르마스 그룹과의 합작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함 - 이번에 구축될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GPU 팜 운영에 특화된 최첨단 설비를 갖추. 심한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랭식과 액체 냉각 시스템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냉각 방식을 적용하고, 일반 데이터센터 랙의 24배 수준에 달하는 고집적 랙을 지원하는 고효율 전력 시스템을 도입함. 또한, 최고 등급의 내진설계와 침수 방지 설계로 안정성을 극대화함 - LG CNS는 이번 사업에 그룹사의 핵심 역량을 총동원하는 '원 LG(One LG)' 통합 솔루션을 적용함. 데이터센터 설계·구축·운영 역량과 더불어 LG전자의 냉각 기술,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솔루션 등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임. 현신균 LG CNS 사장은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동남아를 포함한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 확대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삼성D 부사장, "디스플레이 친환경 전환에 AI가 핵심 도구 될 것"(2025.08.07) - 디스플레이 산업의 친환경 기술 전환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조성찬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은 '2025 디스플레이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과거 디스플레이 산업이 유해 화학물질 사용으로 비판받았으나 이제는 친환경 소재로 대체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힘. 이 과정에서 AI가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함 - 조 부사장은 대표적인 유해 물질인 과불화화합물(PFAS) 계열의 PFOA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함. 이 물질은 기능적으로 뛰어나지만,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그는 앞으로 디스플레이 설계 단계부터 주변 환경 요소를 고려하고, 생산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함 - 이러한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AI가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함. 조 부사장은 "AI는 이제 복잡한 화학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말하며, 기존에 개발이 어려웠던 친환경 발광 재료나 효율적인 픽셀 배열 설계 등을 AI를 통해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함. 이는 AI가 지속 가능한 디스플레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쿠광, 2분기 역대 최대 매출 달성...대만·AI·신선식품이 성장 동력(2025.08.07) - 쿠광이 2025년 2분기에 11조 9,76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또다시 분기별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함.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9% 성장한 수치이며, 영업이익 또한 2,093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견고한 성장세를 과시함. 이러한 호실적은 국내외의 경기 침체 속에서도 쿠광의 핵심 사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대만에서의 로켓배송 사업이 고속 성장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대만 사업은 올 2분기 매출이 전 분기 대비 54%나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임. 김범석 의장은 대만 사업이 초기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장기 성장 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올해 성장사업 투자 규모를 최대 9억 5천만 달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 쿠광은 대만 사업과 더불어 신선식품 부문과 AI 기술을 차세대 핵심 성장축으로 삼고 장기적인 투자를 확대할 방침임. 신선식품 매출은 전년 대비 25% 상승했으며, AI 기술은 개인 맞춤형 추천, 재고 예측, 경로 최적화 등 운영 전반에 깊숙이 활용되고 있음. 김 의장은 AI를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의 장기적 동력으로 보고 투자를 지속할 것임을 강조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AI 기술 고도화, 다른 AI 검증 및 반려동물 종양 진단까지 확장(2025.08.07) - 인공지능(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적용 영역이 크게 확장되어, 이제는 다른 생성형 AI의 답변을 검증하거나 반려동물의 질병을 진단하는 수준에 이름. 스타트업 '에임인텔리전스'는 생성형 AI가 유해한 발언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사전에 위험 징후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안전 보안 솔루션 '에임레드'와 '에임가드'를 개발함 - 에임인텔리전스의 솔루션은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파제 역할을 함. '에임레드'는 AI의 위험 발언을 사전에 막고, '에임가드'는 AI와 사람의 답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편향되거나 거짓된 정보를 걸러냄. 유상윤 대표는 AI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해당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밝힘 - 의료 분야에서도 AI의 활약이 두드러짐. 의사 출신이 창업한 '메타디엑스'는 AI를 활용해 반려동물의 종양 발병 여부를 검사하는 솔루션 '캔서벡(CancerVET)'을 개발함. 방대한 종양 치료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반려동물의 혈액 등 치료만으로 종양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도움. 이들 기업은 모두 아산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음
	□ NH농협금융, 그룹 공동 생성형 AI 테스트 환경 구축 착수(2025.08.07) - NH농협금융이 그룹 계열사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룹 공동 생성형 AI 기술검증(PoC) 환경' 구축에 착수함. 이는 계열사들이 생성형 AI 기반의 신규 서비스를 개발할 때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체 클라우드 장비와 AI 모델 등을 포함할 예정임. 지주사 차원의 이러한 움직임은 KB금융에 이어 두 번째임 - 이번 PoC 환경 구축은 지난해 진행한 'NH생성형 AI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컨설팅의 후속 조치 중 하나임. NH농협금융은 이르면 올해 안에 환경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계열사에 제공하여 그룹 전체의 생성형 AI 도입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임. 이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자 함 - 다른 금융지주들도 AI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음. KB금융은 이미 그룹 공동 생성형 AI 플랫폼 'KB 켄 AI 포털'을 열어 임직원들이 직접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우리금융 역시 은행을 중심으로 '켄-AI' 플랫폼 개시를 준비 중임. 이는 디지털 전환을 넘어 생성형 AI 활용 능력이 금융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앤스로픽 CEO, "AI, 6개월마다 2배씩 기하급수적으로 발전 중"(2025.08.07) - AI 기업 앤스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AI의 발전 속도는 선형적이 아닌 기하급수적“이라고 주장하며, 6개월마다 AI의 능력치가 두 배씩 강해지고 있다고 밝힘. 그는 현재 AI 발전이 기하급수 곡선의 초입에 있어 사람들이 그 속도를 체감하지 못할 뿐, 예상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도약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함. 이는 현재 AI의 발전이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시사함 - 이러한 주장은 지난 몇 년간의 AI 발전 궤적과 일치하는 면이 있음. 오픈AI의 GPT 시리즈나 미드저니의 발전 속도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능력을 보여주며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뒷받침함. 또한, AI 모델 학습에 투입되는 컴퓨팅 자원이 6개월마다 두 배씩 증가하고, AI가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는 시간 한계가 7개월마다 두 배로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함 - 하지만 AI의 무한 성장에 대한 한계론도 만만치 않음. 대부분의 기술 발전이 'S-커브'를 따르듯, 현재의 폭발적인 성장은 급성장 구간일 뿐 결국 기술적, 물리적 한계에 부딪혀 정체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특히 AI 학습에 필수적인 고품질 데이터의 고갈 문제, 모델 훈련에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와 비용 문제 등은 AI의 무한한 성장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장벽으로 꼽힘
	□ 클라우드웍스, 가트너 '금융권 생성형AI 플랫폼' 보고서 대표 기업 선정(2025.08.07) - AI 테크 기업 클라우드웍스가 글로벌 리서치 기업 가트너가 발행한 '금융권 생성형 AI 플랫폼' 시장 가이드 보고서에 한국의 '대표 공급기업'으로 선정됨. 이 보고서는 은행 및 투자 서비스 산업에 특화된 생성형 AI 플랫폼을 공급하는 전 세계 30개 기업을 조명했으며, 클라우드웍스는 세계적인 AI 선도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기술 경쟁력을 입증함 - 가트너는 생성형 AI 플랫폼 시장을 인프라, 모델 접근,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등 4개의 기술 계층으로 분류함. 클라우드웍스는 이 중 인프라를 제외한 3개 영역에서 높은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평가받음. 특히, '생성형 AI 엔지니어링' 영역은 모델의 전 주기 관리, 데이터 관리, 거버넌스까지 포함하는 분야로, 가트너는 이 영역을 “가장 큰 차별화 기회를 제공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함 - 김우승 클라우드웍스 대표는 이번 선정이 자사가 생성형 AI의 기술 구현과 운영 역량을 모두 갖춘 기술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함. 그는 앞으로도 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생성형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벤처기업협회, 유럽 최대 스마트시티 엑스포 참가기업 모집(2025.08.07) - 벤처기업협회가 오는 1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박람회인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콘그레스(SCEWC) 2025'의 한국 공동관에 참가할 유망 벤처기업을 모집함. 이 박람회는 매년 135개국, 850개 도시, 860여 개의 글로벌 기업이 참가하여 디지털 전환, 모빌리티, 정부 혁신 등 다양한 주제로 교류하는 중요한 비즈니스 장임 - 협회는 KOTRA와 함께 한국관을 구성하여 총 7개의 벤처기업을 지원할 계획임. 참가기업에게는 전시 참가비 및 부대비용의 70%, 편도 해상운송비, 현지 홍보 및 바이어 미팅 주선, 통역비 등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됨. 이는 국내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책임 - 모집 대상은 인공지능(AI), 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모빌리티, 에너지, 보안 등 스마트시티 관련 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고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벤처기업임. 협회 관계자는 SCEWC가 글로벌 스마트시티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무대라며, 유럽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벤처기업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 위버스브레인, AI 기반 영어 회화 평가 '맥스AI 스피킹테스트' 출시(2025.08.07) - 인공지능(AI) 교육기업 위버스브레인이 영어 회화 능력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서비스 '맥스AI 스피킹 테스트'를 공식 출시함. 이 시스템은 단순한 일상 회화를 넘어, 항공사 면접과 같은 특정 전문 분야에 필요한 영어 구사 능력을 맞춤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됨. 기업의 채용, 내부 교육, 파견 등 다양한 목적에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장점임 - '맥스AI 스피킹 테스트'는 응시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함. PC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소 20분 이내에 빠르게 실력을 진단할 수 있음. 특히 시험 완료 후 단 10~20초 안에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피드백이 가능함. 결과는 종합평가, 발음, 유창성 등 4가지 항목으로 상세하게 분석되어 제공됨 - 평가 결과는 토익 스피킹, 토플, 아이엘츠 등 주요 공인 영어 시험 기준에 맞춰 환산된 점수로 제공되어 객관적인 실력 비교가 가능함. 조세원 대표는 전문 분야의 영어 능력을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의 수요가 높으며, 이번 서비스가 글로벌 채용 및 역량 진단 분야에서 높은 만족도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코오롱베니트, AI 공동 영업 전문가 그룹 'AI 세일즈 엘리트' 출범 예고(2025.08.07) - 코오롱베니트가 자사의 AI 얼라이언스 생태계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 대상의 AI 도입을 선도할 전문가 그룹인 'AI 세일즈 엘리트'를 모집하여 내달 공식 출범할 계획임. 이 프로그램은 AI 기반의 업무 혁신을 원하는 기업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영업 전문가를 양성하여 AI 비즈니스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AI 세일즈 엘리트'는 코오롱베니트의 AI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파트너사들과 함께 공동으로 영업 활동을 수행하게 됨. 코오롱베니트는 AI 도입을 위한 전략 수립 컨설팅부터 최적의 솔루션 제안까지, 고객에게 밀착된 전문적인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임. 기존 파트너사 중 AI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의지가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엘리트 그룹을 구성할 예정임 - 강재훈 코오롱베니트 팀장은 AI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많은 기업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함. 그는 'AI 세일즈 엘리트'라는 전문가 그룹을 통해 기업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AI 도입을 가속화함으로써, AI 비즈니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함. 내달 킥오프 행사를 통해 본격적인 협업 체계가 가동될 것임
대학교	□ 단국대-한양대, 빛으로 학습하는 종이 위 AI 반도체 개발(2025.08.07) - 단국대학교 최준환 교수와 한양대학교 유호천·오세용 교수 공동연구팀이 빛을 이용해 인간의 뇌신경망 구조를 모방한 차세대 AI 반도체(뉴로모픽 반도체) 개발에 성공함. 이 기술은 기존의 전기 신호 방식과 달리 빛 신호를 활용하는 '광전자 시냅스 소자'로, 연산장치와 메모리를 하나의 칩에 통합하여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이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인 것이 특징임 - 연구팀은 트랜지스터 소자에 이중 절연막 구조를 도입하여, 빛에 의해 생성된 전하를 고분자 절연층 사이에 포획하고 저장하는 독자적인 구조를 구현함. 특히 상온 공정을 통해 유연한 종이 명함 기관 위에도 반도체 소자를 제작하는 데 성공하여, 향후 웨어러블 기기나 AI 센서 등 다양한 분야로의 응용 가능성을 입증함. 이는 기술의 활용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는 성과임 - 개발된 소자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신경망을 구축하고 지문 인식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최대 96%의 높은 정확도를 보이며 사용자 식별 능력을 증명함. 이번 연구는 단일 소자에서 메모리와 시냅스 기능을 통합한 혁신적 사례로, 국제 저명 학술지 'npj Flexible Electronics'에 게재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음. 이는 차세대 AI 하드웨어 기술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 세종대, 전국 교육용 부지에 AI·국방 클러스터 조성 본격화(2025.08.07) - 세종대학교가 경기도 성남, 광주, 경남 창원 등 전국에 보유한 교육용 부지를 활용하여 미래 산업을 선도할 대규모 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각 부지는 지역 특성에 맞춰 반도체(AI), 국방·항공우주, 통합 국방기술 등 특화된 분야의 핵심 거점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이는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임 - 경기도 성남 부지는 각종 규제로 개발이 지연되었으나, 성남시와 '반도체(AI)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함. 광주 부지는 국방, 항공우주, 첨단바이오 산업이 융합된 복합연구단지, 창원 부지는 해군·해병대·사이버안보를 아우르는 통합 국방기술 교육단지로 조성될 계획임. 이는 세종대가 국내 유일하게 육·해·공군 기술 장교 과정을 모두 운영하는 강점을 살린 전략임 - 세종대는 현행 법·행정적 규제로 인해 부지 활용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으며, 성실하게 재산세를 납부해왔다고 밝힘. 대학 측은 규제 완화를 통해 교육·연구 공간을 신속히 확보하고, 절감된 세금 부담을 다시 교육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법적 지원을 촉구함
	□ 한림대 등 6개 대학, 의료 AI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 선정(2025.08.07) - 한림대학교가 경희대, 서울대 등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의료 인공지능(AI)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에 최종 선정됨. 이 사업은 의료 AI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된 6개 대학은 2029년까지 5년간 각각 연간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게 됨.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기반을 구축할 예정임 - 각 대학은 의학, 약학, 공학 등 여러 학문 분야를 융합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임. 주요 특화 분야는 AI를 활용한 질병의 진단 및 예측, 신약 개발, 첨단 의료기기 개발 등임. 학생들은 여러 학과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세부 과정을 통해 다학제적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게 될 것임 - 이번 사업의 특징은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에 있음. 네이버,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유수의 바이오헬스 기업 및 주요 병원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실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AI 실습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 이를 통해 5년간 총 1,000명 이상의 현장 맞춤형 의료 AI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 경남대, '제조 AI 전환 허브 대학' 비전으로 글로벌대학 도전(2025.08.07) - 경남대학교가 '제조 인공지능 전환(AI) 글로벌 허브 대학'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글로벌대학 본지정을 위한 도전에 본격적으로 나섬. 경남대는 경상남도, 창원시, 지역 기업들과 공동협력 선언식을 갖고, 지역 제조업의 재도약을 이끌기 위한 담대한 혁신 의지를 다짐. 앞서 경남대는 이 비전으로 글로벌대학 예비대학에 지정된 바 있음 - 경남대의 핵심 전략은 창원국가산단과 연계한 캠퍼스 현장화, 밀착형 기업 지원, 그리고 초거대 제조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제조 혁신임. 이를 위해 '제조 AI 글로벌 선도 대학', 'AI 융합인재 양성 플래그십 대학', 'AI 융합인재 글로벌 플랫폼 대학'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혁신 과제를 추진할 계획임 - 구체적으로는 제조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 개발, 국외 대학 및 글로벌 기업과의 공동 연구, 산업 현장 중심의 실무형 AI 융합인재 양성, 구글 클라우드 등과의 협력을 통한 AI 실습 환경 구축 등을 추진함. 박재규 총장은 대학이 주도한 AI 모델이 이미 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지역 동반성장을 이를 혁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함
해외	□ 오픈AI, 미국 연방정부에 챗GPT 기업용 서비스 1년간 1달러에 제공(2025.08.07) - 생성형 AI 선두 주자인 오픈AI가 미국 연방정부 기관들을 대상으로 기업용 챗GPT(ChatGPT Enterprise) 서비스를 향후 1년간 단돈 1달러에 제공하기로 결정함. 이는 사실상의 무상 제공으로, 공공 부문에서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조치로 해석됨. 이번 조치는 오픈AI가 워싱턴 D.C.에 첫 사무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루어짐 - 오픈AI는 미국 일반조달청(GSA)과 협력하여 이번 파격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함. 참여하는 연방 행정부 직원들은 기업용 챗GPT를 통해 오픈AI의 가장 최신 AI 모델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며, 고급 음성 모드와 같은 일부 기능은 60일간 추가로 제공됨. 오픈AI는 이를 통해 정부 서비스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AI의 혜택을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힘 - 이번 조치는 오픈AI가 미국 공공 부문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임. 앞서 오픈AI는 미 국방부와 최대 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수주하고 '정부 전용 오픈AI' 프로그램을 출시한 바 있음. 한편, 오픈AI는 최근 약 700조 원의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지분 매각을 위한 투자자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회사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 중국, 반려동물 시장에 AI 기술 접목...스마트 용품 수요 급증(2025.08.07) - 중국의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펫 용품 시장도 함께 크게 확대되고 있음. 특히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원격으로 돌보고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AI 기반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올해 중국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약 15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AI 기술이 적용된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고양이의 배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청소하며 체중까지 측정해주는 '자동 배변 처리기'가 있음. 또한, 스마트폰 앱과 연동하여 반려동물의 식사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AI 자동 급식기 및 급수기', 단시간에 몸을 말리고 살균까지 해주는 '강아지 전용 드라이기' 등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음 - 이러한 스마트 펫 용품들은 AI와 로봇 공학 기술을 결합하여 개체 식별, 건강 이상 신호 분석 등 고도화된 기능을 제공함. 이는 단순히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반려동물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보호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음. AI 기술이 반려동물 케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것임 □ AWS, 아마존 베드록 통해 오픈AI의 오픈 웨이트 모델 제공(2025.08.07) -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자사의 대표적인 생성형 AI 서비스인 '아마존 베드록'과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통해 오픈AI의 새로운 오픈 웨이트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공한다고 발표함. 이번 조치로 개발자들은 'gpt-oss-120b'와 'gpt-oss-20b' 등 오픈AI의 고성능 모델을 AWS 환경에서 손쉽게 활용하여 AI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게 됨 - AWS는 이번에 추가된 오픈AI 모델이 아마존 베드록에서 실행될 경우, 타사의 경쟁 모델 대비 월등한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한다고 강조함. 'gpt-oss-120b' 모델은 제미니 대비 10배, o4 모델 대비 7배 더 뛰어난 가격 대비 성능을 보임. 이는 AWS가 고객에게 다양한 모델 선택권을 제공하면서도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보여줌 - 특히 오픈AI 모델의 뛰어난 추론 기능은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개발에 매우 적합함. 고객들은 '아마존 베드록 에이전트코어'를 통해 오픈AI 모델 기반의 고성능 에이전트를 쉽게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AWS의 엔터프라이즈급 보안과 유해 콘텐츠 차단 기능 등 강력한 거버넌스 도구를 함께 활용하여 안전하고 확장성 있는 AI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 중국 청년들, 고단한 현실 속 위로와 공감 위해 'AI 연인'에 몰입(2025.08.07) - 중국의 MZ세대 사이에서 인공지능(AD)으로 만든 가상의 연인이나 친구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높은 청년 실업률과 팍팍한 현실에 지친 청년들이 비용 부담이 적고 언제나 자신에게 맞춰주는 AI 챗봇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고 정서적 위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마오샹', '싱예' 등 관련 앱의 사용자 수는 이미 수백만 명에 달함 - 최근 중국 테크 기업들이 출시하는 AI 챗봇은 사용자의 감정을 읽고 맞춤형으로 공감과 위로를 제공하는 등 기술적으로 크게 진화함. 사용자는 가상 캐릭터의 외모, 성격, 목소리까지 직접 설정할 수 있어, 단순한 대화 상대를 넘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 이는 사회적 교류 시간이 줄어든 현대 중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줌 -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옴. 사용자에게 완벽하게 맞춰진 AI 연인이 실제 인간관계를 대체하면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어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임. AI 동반자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기술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짐
기타	□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 '모두를 위한 AI' 협력 선언(2025.08.07) -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된 APEC 디지털·AI 장관 회의에서 21개 회원국이 '모두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AI 전환'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장관 선언문을 채택함. 이번 회의에서는 AI 혁신 활성화, 디지털 격차 해소, 안전한 AI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었으며, 민관을 아우르는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됨 - 회의에서는 AI 분야를 선도하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도 드러남. 중국은 개방적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강조하며 제로섬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함. 반면, 미국은 동맹국에 AI 모델과 기술을 포괄적으로 수출하는 'AI 폴스택' 정책을 제시하며, 유럽식 규제 모델을 따를 경우 정체될 수 있다고 경고함. 이는 AI 기술 표준과 거버넌스를 둘러싼 양국의 패권 경쟁을 반영함 - 이러한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의 역할이 강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옴.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만의 AI 모델 서비스 영역에서 차별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정부는 APEC AI 이니셔티브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APEC 정상회의에서 AI 거버넌스, 공급망 관리 등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디지털·AI 분야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 AI, 기후 예측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나 에너지 소비는 부담(2025.08.07) - 인공지능(AI)이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구세주와 환경 파괴자라는 양면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한편에서는 기후 예측의 정확도를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고, 다른 한편에서는 막대한 전력 소비로 인해 새로운 환경 부담을 야기하고 있음. 정수종 서울대 교수는 AI를 '지구를 데우는 엔진'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이라는 복합적인 진단을 내놓음 - AI는 기후 예측 및 환경 보호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구글 딥마인드의 '그래프캐스트'는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기상 예보를 제공하며, 구글의 '플러드 허브'는 전 세계 80개국에 홍수 예보를 제공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함. 또한 AI는 불법 벌목 감시, 야생동물 보호, 친환경 경로 안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탄소 저감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 그러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전력 소비량 급증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2026년까지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함. 100MW급 AI 데이터센터 한 곳이 경기도 하남시 전체 가정이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수준임. 전문가들은 AI 기술의 저전력화와 효율화 노력을 통해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함 □ AI 인재의 중요성, 미·중 경쟁 속 한국의 선택과 집중 전략(2025.08.07) - 미·중 기술패권 전쟁의 핵심인 AI 분야에서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중국은 연간 500만 명에 달하는 STEM 졸업생을 배출하며 전 세계 상위 AI 연구 인력의 47%를 차지하는 등 인재 풀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있음. 또한, 정부 차원의 수백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AI 기초연구부터 산업화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며 AI 굴기를 가속화하고 있음 - 규모의 열세에 있는 한국이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수적임. 모든 분야에서 미·중과 경쟁하기보다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의료, 콘텐츠 분야를 AI와 융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특히 의대 졸업 현상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를 의료 AI 분야를 육성하는 혁신의 발판으로 삼는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정부의 AI 투자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자본시장의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함. 정부가 후순위 투자자로 리스크를 분담하는 메자닌 펀드를 활용하고, 삼성·현대 등 글로벌 대기업이 유망 스타트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함. 또한, 망분리 규제 완화 등 금융혁신을 가로막는 제도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꼽힘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